



베즈라대커 선사 참선 블로그 (2008년 1월 1일)

### ‘불교 용어’ 서구적 재해석 움직임

최근 수많은 서구인들은 참선과 가까워지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재해석하는바, 다른 한편에선 참선의 방편과 다양한 응용 방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참선에서 비롯된 미묘한 체험들을 더 이상 전통적인 제한된 용어 속에 틀어박히지 않으려 한다.

즉, 참선에 관한 동양적인 고정관념과 속성을 털어내고 서구적으로 재해석을 하겠다는 당찬 자기주장이다. 그들은 참선의 수행과정에 생겨나는 정신적, 육체적인 변화들을 적절히 설명할 새로운 단어들을 모색한다. 따라서 이는 공(空)을 ‘비었음(vacancy)’으로 하느냐, 아니면 ‘비워(empiness)’로 하느냐 하는 등의 난해한 낱말풀이를 뛰어넘어 불교철학 전체에 대한 재해석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영국 웨일즈에서 22년 간 선원을 운영해온 베즈라대커 선사의 경우, 참선을 ‘한 점으로 모아짐을 향하는 길(a path toward one-pointedness)’이란 해석을 내놨다. “내 참선체험을 돌아보면, 예를 들어 영어로 ‘집중(concentration)’과 ‘한 점으로 모아짐’은 적어도 불교참선 용어 상 서로 뜻이 전혀 다르거나 상

당히 어긋나곤 한다. 오래 동안 내가 선배선사들에게서 듣고 배워온 ‘폭(breadth)’이라는 영어식 표현은 ‘한 점으로 모아짐’이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초점(focus)’은 오히려 ‘집중된 상태(concentrated status)’로 묘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선수행에 몰입할수록 자아라는 폭, 그리고 참선의 오브제라 할 초점, 이 두 가지가 일체감을 이루어 ‘하나의 전체(one wholeness)’를 이룬다. 수행자는 부지불식간에 공황에 빠져들거나 또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자아, 즉 폭의 감각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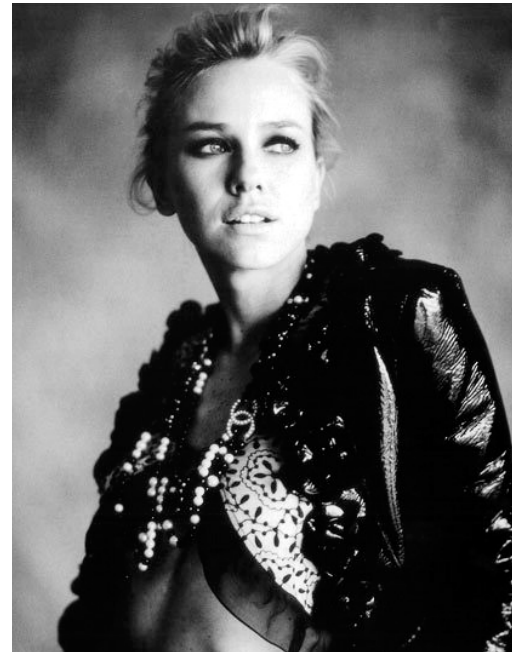
만일 그리 된 경우에는 서서히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와 폭을 되찾은 후, 다시금 초점을 되찾아가야 한다. 이렇듯 폭과 초점이 서로 가까워지면, 수행자는 점차 받아들임과 깨달음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더욱 심오한 집중을 하면 이윽고 뭔가 떠오름(arising)과 트임(openness)을 체험한다. 마침내 할나의 소중한 깊이가 살아나 수행자는 흠여짐이 없는 명철한 지각과 직관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란 가없이 드넓기도 하고 한없이 한 점으로 모아지기도 한다.”

편역: 성휴 스님

## 좌절 겪는 여인 역 열연 후 불제자 길로

###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영화배우 나오미 왓츠



기독교적 성장교육배경의 서구인들이 불교와 만나는 계기는 다양인과 꼭 다른바, 특히 영상매체의 기여도가 크다. 얼마 전 송산 스님의 열반 3주기행사에 참석하러 라스베이거스에서 서울까지 찾아온 캐린 레나이런 미국 보살님을 우연히 만나 불문에 들어선 연유를 묻자 영화 ‘스타워즈’를 보고서 초발심이 일었다고 했다. 전에 우리 불경스터디그룹의 외국학생들의 대답도 비슷했다.

이는 불교관련영화의 배우나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다. 키아누 리브스는 ‘리틀 붓다’, 브래드 피트는 ‘티베트에서 칠년’에서 열연하다 불교에 심취했으며, 스티븐 세이지와 베르틀루치 감독 등도 불교작품에 몰두하다 불심에 젖어 들었다. 특출한 감수성과 예술 인재를 지닌 그들은 작품의 철학적 요소에 몰입하여 일종의 삼매경에 이르는 터라, 본인 자신을 작품 안의 정황이나 인물 속으로 옮겨 담는 감정이입이 쉬워진다.

즉, 실제 구도행각에 가까운 유사체험을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나오미는 중국 서남부 오지에서 영화 ‘허울 좋은 너울’을 찍던 중 불제자가 됐다. 그 사연을 알자면 약간의 줄거리가 필요하다.

1925년 런던, 화려한 사회계를 누비던 키티나오미 왓츠는 냉철한 성격의 세균학자 윌터를 만나 어머니의 답답한 그늘에서 탈출하고자 그의 청혼을 수락한다. 연구 때문에 중국 상해로 간 그들은 성격, 취향의 심한 차이로 서로 갈뉘었다.

그녀는 윌터와 멀어지던 중 한 의과관과 애유에 빠진다.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윌터는 콜레라가 퍼진 오지산골로 자원, 그녀의 배신에 보복하듯 함께 데려간다. 윌터는 전염병으로 마구 쓰러지는 산골사람들의 치료에 매달리는 한편, 키티는 귀양살이 같은 나날을 보낸다.

배타적인 현지인들은 윌터의 진심에 차츰 마음을 열고 그녀도 수녀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난생 처음 남을 위해 일한다. 이윽고 둘 사이에 참사랑이 피어오르지만 또 다른 슬픔이 기다린다. 대개 이런 얘기다. 내일 모레 불혹의 나이를 맞은 나오미는 키티를 통해 자신의 반생을 돌아봤으리라.

그녀는 철들 무렵 영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 백화점 점원생활, 친구 니콜 키드먼의 출세에 따른 패배감, 일자리를 구하려 일본까지 가는 등 혼돈과 좌절 속을 헤맸다. 이래저래 우여곡절을 겪은 나오미와 극중의 키티 사이에는 쉽사리 감정전이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게 구도행각의 유사체험인지, 어디선가 본 듯한 전생의 데자뷰인지 알 순 없지만.

성휴 스님

### 베를린 불교단체 이색 송년행사

지난 12월 20일 독일 베를린의 불교단체 중 하나인 부디스티스토크는 최초로 동지와 송년을 함께 기념하는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2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이 행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불교적 포용성의 측면에서 풀이한 것으로 남에게서 얻고 받은 바에 감사하고 서로 해해를 축하하며 선물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생강 빵과 과일음료가 마련된 조촐한 기념파티에서 동 협회 아모가라라 회장은 이번 이벤트가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례 동지 행사의 시발점이 되리라 말했다. 출처: TBMSG

###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시절 인권유린사범에 중형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1976년부터 8년간 군부 독재 체제 하에서 반체제인사들에게 자행된 납치, 고문, 실종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 당시 인권유린사범에 대한 1987년 특별사면법을 무효화하고, 홀리오 시몬 등 전직 군과 경찰간부 전원에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지난 12월 19일 최종 확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라 플라타 소재 연방법원은 당시 군중신부인 독일계 크리스티안 폰 비르니히에 대한 살해 7건, 고문 31건, 유괴난치 34건의 중범죄혐의를 재심했다. 수많은 증인들은 그가 성직자 신분을 활용, 강제수용소 구금자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실토하도록 강요했다. 그에게 징징이 선고되자 법원 밖에서는 ‘국가실종자위원회’ 및 일반군중들의 일대 환호성이 터졌다.

1만에서 3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실종자들의 가족연대인 ‘5월의 광장 어머니회’의 사라레이는 “아직도 당시 극악범죄의 협력자들이 교단의 보호 하에 다수 숨어있으며, 이번 판결은 과거사 정리를 향한 첫걸음”이라 말했다.

과거 악몽에 따른 집단히스테리로 국제적 연 구대상이 되기도 한 아르헨티나국민들은 지금도 상호불신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2001년에 이어 2006년 두 차례 현지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특정종교에 대한 환멸과 증오감을 지니지 않도록 당부한 한편, 인간사회는 정부나 종교계 등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민초에 의해 변화한다는 평소 소신을 밝히며 그들을 위로했다.

출처: AP, BBC, 주아르헨티나트루스 에스빠시오 종합

###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This place is where people stay for a short time and then go on

-이 곳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입니다

A well-known guru came to the King's palace. The gate guards tried but failed to stop him as he made his way to the King sitting on the throne. "What do you want?" asked the King, soon recognizing the uninvited guest. "I need a place to sleep in this inn," replied the guru. "But this is not an inn," chuckled the King, "It is my palace." "Oh, really? May I ask who owned this palace before you?" "My father. He's gone." "And who owned it before him?" "My great grandfathers. They're gone, too." "And this place is where people stay for a short time and then go on - did I hear you say that it is NOT an inn?"

어느 이름난 도사가 왕궁으로 갔다. 그는 정문 수비병들을 재끼고 무턱대고 옥좌에 앉은 왕에게 다가갔다. 그 불청객을 이내 알아본 왕이 물었다. “어인 일이시요?” 도사가 대답했다. “이 주막에서 하루 묵어갈까 하옵니다.” 왕이 깔깔대다. “헌데 여긴 주막이 아니라 내 궁전이지요.” “아, 그래요? 그럼 이 궁전은 폐허에 앞서 누구 것이었나 여쭙 봐도 되겠나이까?” “그야 물론 짐의 부왕이시지요. 이젠 떠나셨지만.” “하긴 그분 보다 앞서서 어느 분들의 것이었나이까?” “짐의 태상왕들이시요. 그분들 또한 떠나셨소만.” “그렇다면 여기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가 주막이 아니라 하시나이까?”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 참선공지도자

### 神 임상도통사

### 神 치유의통사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속전속결 고급해결반 모집

● 환혼동(幻魂動):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체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 임상도통사: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곁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 치유의통사: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총재 무공합장

#### ◆ 참선공의식 사례

-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이까지 한의원, 병원, 기공, 각종 지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 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60세 중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 후 건강하게 통증을 없애 잘 걸었다.
-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울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50세 중년 스님은 영기가 빙의 되어 눈에 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 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 전화: 02)383-7057 / 011-379-1319  
● 주소: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4번)